닛신보 - 2003년 하반기 결산 흑자예상

닛신보는 2002년도 상반기 결산에서, 섬유사업은 그 동안 재고(在庫)로 되어 있는 제품을 과감하게 처분하여 판매원가에 가산하였으므로, 전기(前期)와 동일하게 영업적자를 냈다.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적자를 메우지는 못할 것 같지만 흑자로 결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

2003년도에는 일본 내 공장의 생산품종을 보다 경쟁력이 강한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바꾸고, 코스트 · 다운과 해외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"섬유사업본부의 업적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"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섬유사업본부의 중점 추진사항은 ①일본내 공장의 재구축 ②해외사업의 강화 ③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④텍스타일 수출의 확대 ⑤판매관리비의 삭감 등 5개 항목을 들고 있다. 일본 내 공장과 해외공장의 역할 분담은, 해외에 생산거점이 없으면 볼륨 · 존(volume zone) 상품에 대한 주문에 응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, 굴지의 어패럴 기업과의 종합적인 거래가 어렵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. 또한 "일본 내 설비를 살리기 위해서도 해외에서의 생산사업을 강화"하고 있다.